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에 관한 연구

권혁준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채현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목차>

I. 서론

1. 연구 질문 및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3. 연구 방법
4. 연구 흐름 및 구성

II. 문헌연구

1. 게이들의 역사적 배경
2. 게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대응

III.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

1. 게이들의 공간
2. 게이들의 공간에 오게 된 심층 원인
3.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이 생기는 요인
4.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공간과 덜 힘든 공간

IV. 결론

V.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질문 및 연구 목적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소수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일비재 하다. 소수집단 중 성 소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과거 성소수자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들만의 읍지에 숨어 활동 하였다. 비록 현재에 들어서서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지표면상의 공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광범위 해졌지만 아직까지 성소수자들이 체감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사회 비주류집단인 성소수자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현상이 이루어졌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들이 대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대중적 인식이 각종 매체로 인해 빠르게 팽배해지면서 성소수자들에 대해 점차 열린 마음,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한 유명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트랜스젠더 연예인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¹⁾

우리나라에서는 게이 남성이나 레즈비언 여성처럼 성 소수자들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한 접근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게이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하고 공간을 형성, 확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종로구나 이태원 등에서 게이 바, 주점, 사우나, 극장 등을 시작으로 확장해 나갔으며, 특히 대구 동대구역 주변 지역은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인정받고 지역 경관변화를 일으켜서 특수한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집단인 성 소수자들이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에 의해서 그들이 느끼는 공간적 제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전자 통신의 발달로 인해 게이들의 가상적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고 발달되었으나 본 연구는 게이들의 공간을 게이들 간 서로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지표 위 공간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자는 게이들의 공간에 방문해 본 게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밀집공간과 그곳을 벗어난 공간에 대해 그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공간 제약을 비교 고찰 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게이들이 자신들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벗어난 공간에서의 장소에 차이에 따라 느

1) 김지윤·이승민, 2013. 「이반 남성의 장소 형성」,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학위 논문. p.1

끼는 공간적 제약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게이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연구 과정에서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의 역사를 파악 할 수 있었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게이들이 대응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문헌연구 과정을 통해 게이들에 대한 사전 이해를 넓힌 다음, 좀 더 심층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공간적 제약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적 자료 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게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대구 동대구역 주변에 게이 바를 방문하였는데, 방문하기 전에 먼저 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논문의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 그 곳을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 대상을 게이 바를 찾아오는 게이들에 한정 시키지 않고 눈덩이 표집(snow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이들을 소개받아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과정을 통해 문헌연구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사실들과 현실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본 논문에서 알고자 하는 연구 방향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었다.

4. 연구 흐름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나 다른 요인들의 이유로 인해 게이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 하게 되었고, 게이들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벗어난 곳에서 게이들이 느끼는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질문, 연구 문제를 밝히고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II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게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게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게이들의 대응을 통해 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알아 볼 것이다.

II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인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다시 말해 심층 면담했던 자료를 통해서 우선 게이들이 왜 자신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알아 볼 것이고, 게이들의 공간에서와 다른 공간에서 느끼는 공간적 제약을 살펴 본 다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가장 힘들었던 공간과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던 공간을 밝혀 게이들은 장소에 따라 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맞추어 상세히 알아 볼 것이다.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와 문제점 및 한계점을 찾아내어 논의 해 보겠다.

II. 문헌연구

1. 게이들의 역사적 배경

남자들은 아마 어느 역사적 시기에나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모든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역사에서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²⁾

2)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

게이의 어원을 살펴보면 게이(gay)는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일반적으로는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본래는 ‘쾌활하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나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동성애자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다. 원래는 남성,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였으나 현재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³⁾

고대 시대의 도자기 파편에는 이성애를 다루는 그림 뿐 만 아니라 동성애를 다루는 그림들도 자주 발견되어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과 소년간의 동성애, 즉 ‘그리스식 동성애’(Greek love)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같은 소년과 성인 남성간의 동성애에 대해 특별한 탄압을 가하지 않았다. 남성간의 동성애에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건 중세시대 부터였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허락된 이후, 콘스탄티우스 2세의 치하인 342년에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성인 남성의 수동적 성교를 비하하던 그리스적 사교의 형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4세기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기독교라는 종교아래 남성간의 동성애는 음지로 숨어 들 수밖에 없었다.

중세 이후 근대로 시기가 넘어오면서 계속된 탄압을 감수해야 했던 동성애자들은 20세기 즈음 하여 활발한 인권 운동을 펼치게 된다. 여기에는 도시와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원적으로 변하고 한층 자유로워진 사회상, 인본주의 의식의 성장에 따른 동성애자 내부의 결집력 강화 등 시대적 상황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소위 동성애 운동으로 통칭되는 조직적 저항은 차별 철폐라는 성과를 낳았고, 동성애자의 인권 수준이 다소 향상 되는 진전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이후 유럽 대륙에서 동성애자들은 나치당의 여러 박해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근대부터 시작된 동성애자들의 저항은 현대에 오면서 가속화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대중매체,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쉽사리 하지 못했던 커밍아웃⁴⁾을 하며 다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게이들이 미용과 패션업계에서 두드러진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게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14년 7월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주 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게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대응

문헌 연구과정 중 첫 번째인 게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에서 고대 시대까지는 동성애에 대해 특별한 탄압을 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기 까지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인 이유로 게이들을 탄압해 왔으며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게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만연해 졌다.

게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중 먼저 ‘에이즈’ 라는 병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3) 게이의 용어. (<http://ko.wikipedia.org/>) [2014.12.2.]

4) 게이 남성이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간의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가 걸리며, 에이즈는 게이들만의 고유의 병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1982년 6월 한 병리학 연구원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동성애자 남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 병이 성병일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 잘못된 정보는 고쳐지지 않고 대중적으로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만의 고유의 병이라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곧 질병 통제 예방센터는 감염자 절반 이상이 동성애자 남성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이 병은 다수의 혈우병환자 이성애자인 약물중독자,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1982년 8월이 되어서야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해당 병을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즉 AIDS(에이즈)라 공식적으로 명명한다.

에이즈 병 말고도 기독교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게이들은 필요 없는 존재로서 강력한 탄압 대상이 되었다. 4세기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동성애는 자위행위나 피임처럼 신이 허용한 성교의 본래 목적인 종족 보존과는 무관한 탐욕적인 성행위라는 해석이 담긴 성경의 계율을 어긴 범죄로 본 것이다. 영국에서는 ‘올리버 크롬웰’ 집권기의 시범 실시를 거쳐, 1533년 ‘헨리 8세’ 재위 중 동성애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소도미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이후 유럽과 제국주의하의 식민지 국가들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고, 동성애에 대해 큰 인식이 없었던 중국에서도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며 동성애에 대한 박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슬람교에서는 동성애를 박해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인식을 가진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⁵⁾

이렇게 게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비주류 집단으로 구분 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부정적 인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게이들은 여러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게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 하였다. 게이 활동가들은 게이 정체성의 개념을 통해서 동성애를 정치화하고 동성애 욕망을 경험하는 남성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이런 운동이 기존에 낙인 찍혀 있던 욕망들을 많이 정상화시키고 근대 개념의 게이 정체성을 창조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⁶⁾

초기에 동성애는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로 제한되면서 하위문화에 머물렀지만 “스톤월 저항(Stonewall Rebellion)” 과 근대 게이와 레즈비언 운동의 시작 이후에는 하나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69년에 시작되어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L.G.B.T⁷⁾ 운동의 게



그림 1. L.G.B.T 운동의 게이 퍼레이드
출처: 네이버 블로그

5) 정원희. 2013.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 - 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
6)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6

이 퍼레이드가 대표적인 이슈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게이들의 활발한 활동과 사회운동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에서 점차 긍정적이고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인격을 존중해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식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게이들의 법적 권리도 획득하였다. 캐나다의 퀘벡주가 세계 최초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였다. 이후 많은 연방제 국가에서 주(州)단위로 차별 금지법이 입안되었다. 국가단위로는 프랑스가 최초로 1985년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00여 개 국가가 비슷한 법률을 도입하였다. 일부 세계 혜택, 건강 보험, 상속권, 병원에서의 면회권 등이 보장되는 시민결합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가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완전한 권리를 지닌 동성 결혼 제도는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벨기에(2003년), 스페인, 캐나다(2005년) 등의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15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으며,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민 결합 및 동성 결혼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Ⅲ.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

1. 게이들의 공간의 입지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발달 하면서 도시 하위문화는 대다수의 주류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곳에서 수 세기 동안 존재하며,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해 왔다. 도시 하위문화 중 동성애에 대한 문화도 함께 존속해 왔다. 동성애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섹슈얼리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만남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중적으로 알기에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장소를 구성해 왔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다.⁸⁾

Chauncy(1994)는 “게이 만남의 장소의 지형학(topography of gay meeting places)”을 이야기 하며, 뉴욕에서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가 공적인 곳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영역화 했다고 보았다. 뉴욕에서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는 바, 극장, 사우나, 하숙집, 화장실, 그리고 공원 등이었고, 자신들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었다. 뉴욕에서 게이 남성들의 존재는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졌었고, 특정한 몇몇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장소를 만들었다.⁹⁾

게이 남성들의 공간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대부분 대도시의 극장, 화장실, 바, 사우나, 공원, 터미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 상의 공간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의 공간 역시 만남의 장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에 있는 파고다 극장이 우리나라 게이 남성 공간의 기원이 되는 곳이다. 여러 게이들의 공간 중에서 게이들의 공간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게이 바이다. 우리나라의

7) LGBT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이다.

8) 이서진. 2007.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0

9) D. Mitchell. Sex and Sexuality: The Cultural Politics and Political Geography of Liberation in D. Mitchell,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Blackwell, 2000), Syracuse University.

게이 바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집중해 있다. 다시 말해, 서울 종로지역과 이태원지역, 부산 범일동지역, 광주 대인동지역, 대구 동대구지역, 대전 대흥동지역에 게이 바가 위치해 있다. 전국에 분포해있는 게이 바의 위치를 알아 본 결과 게이 바는 접근성에 용이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인을 만나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크게 의심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서울 종로 지역 게이 바의 분포
출처: Ishap Guide Book(2014)



그림 3. 대구 동대구 지역 게이 바의 분포
출처: Ishap Guide Book(2014)

2. 게이들의 공간에 오게 된 심층 원인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자는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이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게이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대구 동대구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게이 바를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자에게 먼저 게이 바와 같은 게이들의 공간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왜 오게 되었는지 질문 하였다.

“처음엔 무서워서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찾아갔지. 30대 후반 40대 초반 같은 우리 나이 또래의 경우는 게이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했고, 그 당시 대구에는 게이들이 만나는 공간이 없었어. 암암리에 서울 종로에만 극장이나 공원 같은 경로로 게이들이 만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갔어. 학창시절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종로가 게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소개 되어 있었어. 신문에는 게이들이 사회 암적인 존재로 표현 했어. 지금에 비해 많이 부정적이었지.” (40대 게이 K씨)

게이들의 공간에 오게 된 요인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심층 면담 한 결과, 이처럼 대부분 시작은 호기심에 의해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신과 같은 게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장소이기에 처음 게이들의 공간으로 나오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기심으로 게이들의 공간을 찾아오게 된 경우 말고도 본인의 게이애인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었

다. 그리고 30대 초, 중반 연령의 게이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이전에 ‘1537 음성사서함’을 통해서 서로간의 소통을 하였고, 천리안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채팅으로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적절한 장소를 찾다가 게이 바를 찾게 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게이들의 공간에 오게 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초기 전자통신의 발달로 인해 처음으로 지표상의 게이들의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상 게이공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게이들의 공간적 제약이 생기는 요인

게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들에게 숨기려는 경향이 많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게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이들을 인정하기 힘든 사회적인 규범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가부장 사회로 종종 묘사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주요 이데올로기였으며 사회를 남성적인 영역과 여성적인 영역으로 분리했으며 효를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압축된 근대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젠더 차이와 위계 그리고 효의 개념에 기반한 유교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가부장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가부장제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이성애규범주의¹⁰⁾라는 강한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이성애규범적인 문화에서는 동성애가 독립적인 범주를 이루고 게이 남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게이로 지칭한 후에도 커밍아웃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¹¹⁾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고, 특히나 부모들의 사교는 자신의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더욱 게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다. 가족 뿐 만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규범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음지로 숨어들어 자신들의 공간을 형성해 올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게이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게이라고 남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내해야하므로 하지 않아요.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승진과 같은 불이익과 회사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득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학교, 직장, 군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면서 필수적으로 거쳐 가야 하는 공간이므로 솔직히 속해지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이유로 게이 바와 같은 우리들만의 고립적인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30대 후반 게이 J씨)

이처럼 대부분의 게이들은 자신들만의 게이공간에서 벗어난 공간에서는 일반 남성과 같은 행동들을 보이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대체로 숨기고 있었다. 또한 인간으로 살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간에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하지만 큰 소속감을 가지지도 않으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10) 이성애규범주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만을 인정하고 성은 젠더 정체성과 젠더 역할 그리고 성적 취향과 동일시된다는 이분법적인 젠더제도이다.

11)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5-37

“저는 사람들과 만나면 여자를 좋아하는 척을 하는 등 항상 일반인인척 연기를 해요. 이렇게 연기를 하며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하니까 스스로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거든요.” (20대 후반 게이 P씨)

하지만 모든 게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게이들은 사회의 비주류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이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과정과 대상이 단지 남과 다를 뿐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활동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커밍아웃을 했고,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재 대구에서 매년 열리는 ‘동성로 퀴어 축제’ 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40대 게이 K씨)

소수의 게이들이 자신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사회에 한 주류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게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간적으로도 사회에서 대다수 주류인들의 공간과 분류되어 위치한다.

4.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공간과 덜 힘든 공간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부분 게이들은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남들에게 숨기고 자신들만의 공간에서만 드러내며, 게이공간에서 타 게이들과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이유로 게이들의 공간이 형성되며, 게이들은 공간적 제약을 느끼고 있다. 본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본 연구자는 게이들이 공간에 따라 느끼는 제약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장 드러내기 힘든 공간과 덜 힘든 공간은 어디였는지 연구 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은 공간에서 더욱 조심스러워 지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아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눈치가 빨라서 쉽게 저의 성 정체성을 눈치 채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 힘들어요. 타인들에게는 커밍아웃을 할 수 있어도 가족들에게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며, 가족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연을 끊을 수 없고 평생 연을 맺고 살아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요.” (30대 초반 게이 S씨)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공간은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는 매우 통제된 공간으로서 철저한 계급과 규율이 존재하고 사적인 취향과 배려가 없는 공간이니까요. 반면에 덜 힘든 공간은 지금의 직장 공간이에요. 우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남성들보다 좀 더 꼼꼼하고 패션분야에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서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저 또한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게이들이 많이 진

출 해있는 분야라서 다른 직장들보다 상대적으로 게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 해요. 그래서 저는 남성성이 강한 직장에 비해 공간적인 제약을 덜 받는 편이에요.”
(30대 중반 게이 B씨)

본 논문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공간으로 회사나 학교, 군대와 같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장시간 같이 지내야 하는 통제된 공간을 힘든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인이 관계를 쉽게 맺고 끊을 수 없는 가족과,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들 보다 공간적 제약을 보다 더 느낀다. 또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대체로 쉽게 눈치 챌 수 있는 여자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본인의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해야 하므로 공간적 제약을 느낀다.

반대로 게이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덜 힘든 공간으로는 게이 바와 같이 자신들과 비슷한 게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손꼽았으며,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비교적 덜 힘든 공간으로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게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패션업계나 엔터테인먼트 등 아트와 예술관련 직장공간에서 게이들은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

표 1.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공간과 덜 힘든 공간

|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공간 |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덜 힘든 공간 |
|---------------------------|--------------------------------|
|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 | 게이 바와 같이 게이들이 모이는 공간 |
|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공간 |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 |
|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공간 |
| 회사, 학교, 군대와 같은 통제된 공간 | 패션업계나 엔터테인먼트 등 아트와 예술 관련 직장 공간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비주류로서 소수집단인 성 소수자들이 현대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형성하였고, 그들이 느끼는 공간적 제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 질문을 가지고 문헌 연구, 자료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구 동대구역 일대의 게이 바를 방문해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해 연구 목적에 타당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게이들의 공간과, 게이들의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요인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힘든 공간과 덜 힘든 공간에

대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주류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들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발달 하면서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해 왔다. 대표적으로 극장, 터미널, 공원, 사우나, 게이 바, 인터넷 온라인 공간 등이 있다. 대다수의 게이들은 처음에 자신과 비슷한 게이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게이들의 공간에 오게 되었다.

둘째, 게이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벗어난 공간에서 공간적 제약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극단적인 젠더차이와 이성애규범주의라는 강한 문화가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어 게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게이들은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셋째, 그들은 학교, 직장과 같은 통제된 공간과 가족, 여자들이 많은 공간들에서 가장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았고, 게이 바와 같은 게이들의 공간과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비교적 덜 힘든 공간으로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게이들은 대체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벗어난 공간에서는 공간적 제약을 느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간적 제약이 단지 지표상의 공간차이의 이유보다 그 공간 안에서 게이임을 숨기고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하는 부담감과 게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 때문에 게이들은 공간에 따라 제약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다시 말해 자신들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고, 게이임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다. 반대로 대중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는 공간적 제약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리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게이에 대한 연구를 게이들의 공간과 다른 공간에서 느끼는 공간적 제약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 대상들을 선정하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게이들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연구 주제들과 비교해서 적은 편인데, 앞으로 지리학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소수자들의 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로 많은 연구 활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V. 참고문헌

이서진. 2007.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원희. 2013.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 - 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병주. 2010. 동성애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미나. 2001. 사이버 공간에서 동성애자 집단의 소수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종현 · 진영주. 1999. 게이와 여대생 패션집단의 의복이미지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
문화대학

김지윤 · 이승민. 2013. 이반 남성의 장소 형성,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학위 논문

D. Mitchell. Sex and Sexuality: The Cultural Politics and Political Geography of Liberation in D.
Mitchell,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Blackwell, 2000), Syracuse University.

J Weeks. 서동진 (역). 1999,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